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평화권 모임 지음

US WAR CRIMES AND CASUALTIES OF THE 2003 IRAQ WAR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평화권 모임 지음

전쟁

그 기괴한 목적을 지니하는 것은

US WAR CRIMES AND CASUALTIES OF THE 2003 IRAQ WAR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평화권 모임 지음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이라크 전역에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라크 전역에서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대량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대량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라크는 대량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라크는 대량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라크는 대량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대량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이라크를 침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대량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라크는 대량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라크는 대량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 그 거대한 폭력을 기억하는 것은 평화만이 가능합니다

지난 3월 20일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이라크 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그 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서울의 노동사목회관에서 [전쟁과 인권]이란 주제의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인권과 생명에 대한 권리가 무시되는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진행된 포럼은 무기력과 참담함으로 가라앉았고, 권리로서의 평화를 얻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몇몇 단체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격이 더욱 맹위를 떨치던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5명의 젊은 활동가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현재의 전쟁을 기억하고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하여야하는 당위성에 동의하였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권 운동에 대한 고민에 앞서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책자형태의 보고서는 각종 외신보도와 국외 인권·평화단체들의 자료를 채집하고 번역하는 작업으로 곧 끝낼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을 맡아하는 활동가들의 게으른 탓도 있었지만, 당장에 죽음의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가족의 죽음을,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일상을 살아야 할 이라크 민중의 삶을 풀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 당한 이라크민중의 삶과 그곳의 환경과 문화, 더 나아가 미국식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폭력을 그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든 활동가들이 똑같이 느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민간인 피해 상황을 정리하며, 한편에는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의 피해를 날짜별, 유형별로 정리한 일지를 놓고, 다른 한편에는 전자계산기를 놓고, 민간인 사망자의 숫자를 세고, 통계를 계산하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참담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건들이 등장함에 따라 정리해야 할 부분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한정시키고, 그 부분만을 조금이라도 충실히 정리하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작은 책자에서는 국제인도주의법과 여러 국제조약들에서 전쟁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피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벌인 범죄사실을 고발하는 “국제인도법과 미국의 전쟁범죄”와 3월 20일부터의 민간인 피해를 사건별로 정리한 일지, 이라크 민중의 직접증언을 채집하여 번역한 “이라크 민중의 목소리”,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재앙”, 전쟁으로 인한 기초 시설의 피해를 정리한 “위험에 빠진 이라크의 공중위생”,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이야기인 “이라크 전쟁과 아동”, 마지막으로 전쟁이후 미국의 이라크 점령구상과 패권장악을 위한 계획을 전망해 보는 “미국의 정치적 위협” 등의 주제별 글들이 실렸습니다.

‘권리로서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제법 거창한 꿈을 꾸는 평화권 모임의 작은 시작이 비로소 이 작은 책자를 통해 밖으로 뻗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경외감을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오랜 투쟁의 과정속에서 얻어낸 국제인권조약과 규범들을 송두리째 무용지물로 만든 미국의 전쟁을 기억하고 고발하는 것은 보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평화를 외치기 위한 시작입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외침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를 뒤덮었던 2003

년 상반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폭력적 면모들이 이곳저곳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전평화의 운동의 반성과 함께 보다 진지한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고 미약하지만 소중한 책자를 한국사회에 드리며 평화권 모임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려고 합니다.

모든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평화권 모임은 꿈꿉니다. 진정 꿈만 같아 보이는 세상에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힘을 믿고 의지하며 평화권 모임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삶의 고통에 아우성치고 있을 이라크 민중들과 전쟁의 경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이 작은 책자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힘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주변에서 소재자의 발간을 애타게 기다려주신 동료 활동가 분들께 평화권 모임의 활동가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한 일이 가장 적어 제가 서문을 쓰게 되었지만, 참으로 애쓰고 고생해주신 평화권 모임의 활동가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3년 7월 18일
평화권모임의 모든 활동가를 대신하여
상용

「평화권 모임」에는 현재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의 활동가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권 모임」 홈페이지는 peacenet.jinbo.net 입니다.

차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전쟁으로 인한 제양

서문	1
전쟁, 그 거대한 폭력을 기억하는 것은 평화만이 가능합니다	
1부 국제인도법과 미국의 전쟁범죄	7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인가 / 8	
국제인도법과 전쟁범죄 / 14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전쟁범죄 개요 / 25	
2부 이라크 민간인 피해일지	37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 38	
집속탄 및 불발탄 폭발로 인한 피해 / 46	
민간인 사살과 군중 학살 / 51	
그 밖의 민간인 피해상황 / 60	
3부 이라크 민중의 목소리	63
한 이라크 소녀의 일기 / 64	
우리를 모두 죽이기 위해 연합했다 / 75	
전쟁을 멈추십시오 / 83	

우리도 준비할 것입니다 / 85	
우리는 왜 선택적 보복주의에 찬성하는가 / 87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 88	
바그다드에서 온 편지 / 90	
이라크 여성이 반전운동에 보내는 공개서한 / 93	
쿠르드인이 말하는 참상 / 98	
4부 끝나지 않는 전쟁	101
이라크 전쟁과 아동 / 102	
위험에 빠진 이라크의 공중위생 / 121	
대량살상무기와 그 피해들 / 137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위험 / 150	
부록	159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 원인 / 160	
사이트 소개 / 173	

1부 국제인도법과 미국의 전쟁범죄

이 책은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미국의 전쟁범죄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어났던 만행들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만행들이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만행들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중 민간인과 부상자를 보호하고, 전쟁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만행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책은 미국의 전쟁범죄가 이러한 법의 원칙을 어긋냈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만행들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미국의 전쟁범죄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어났던 만행들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만행들이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만행들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서론

1부 국제인도법과 미국의 전쟁범죄

2부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3부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4부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0: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1: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2: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3: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4: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5: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6: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17: 미국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인가?

조범영, 이종민, 최병호, 이태준, 박은정

천주교 인권위원회 박은정

국제인도법,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이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법과 맞닥뜨린다. 분쟁이 생기거나 이해관계에 조정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법에 호소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에 의존하곤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국제법이 법대로 적용되지 않고, 힘있는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지난 3월 발발한 이라크전쟁도 국제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침략행위이다.

그간 인류가 겪은 아픈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국제법의 문제는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고,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법을 집행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엄연히 국제사회가 법으로 제정하고 각국이 비준한 조약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상황하에서도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1세기에도 분쟁과 무력충돌은 끊이지 않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에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를 방지하고 희생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인도법을 널리 알리고 강화해야 한다.

1. 국제인도법의 정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¹⁾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요원과 적대행위 불가담자를 적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 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은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고통을 예방·완화시키려는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실정국제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법은 무력충돌시의 인간의 기본권존중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사상을 제고하는 원칙이다.

2. 주요원칙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으로 불가침, 비차별, 안전, 중립, 정상생활보호, 보호, 구호 등 일곱 가지가 있다.

① 불가침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그리고 자기의 개성으로부터 불가분한 여러 가지의 속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② 비차별의 원칙 : 개인의 인종·성별·국적·언어·사회적지위, 재산정도, 그의 정치적·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나 기타 기준에 입각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용태·욕구·고통 등으로 인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1) 국제인도법은 순전히 전쟁을 포함한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1949년의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데 반해, 전쟁법은 전쟁의 방법·수단을 규율하는 법으로 1899년에서 1907년까지의 헤이그협약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쟁법은 그 자체가 많은 인도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인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정국제법적 차원에서 볼 때 국제인도법은 전쟁법과는 독립된 법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는 않는다.

③ 중립의 원칙 : 인도주의적 원조는 당해 전쟁 또는 충돌·사태에 대한 개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④ 정상생활확보의 원칙 : 피보호자는 가급적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포로제도란 결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전상대국의 구성원이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⑤ 보호의 원칙 : 국가는 자기 권력내에 있는 적군에 대해 국내적·국제적 보호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⑥ 구호의 원칙 : 누구나 구호와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주요사항

국제인도법의 주요사항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상황 하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고통의 경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희생자(보호대상자)들의 국적, 종교, 계급, 인종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함이 없이

- 전투에 가담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보호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장, 의료요원, 시설, 장비 등도 존중한다)
-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 인도법의 위반은 억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라고 할 수 있다.

4. 제네바협약

제네바협약은 원래 1859년 이탈리아통일전쟁 중 솔페리노전지에서의 인도적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적십자를 창시한 앙리 뒤낭의 주창하에 제정된 최초의 적십자조약의 10개 조문을 기초로 탄생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전지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여 주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었다. 이후 이 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한 1899년의 헤이그협약과 1929년의 포로협약의 제정을 거쳐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미비한 상황을 보완하는 작업이 착수되어 3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1949년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추가된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후 세계도처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에서 나타난 전쟁의 방법과 수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특히 민간인보호제도상 보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977년 제네바 모든 협약에 추가되는 2개의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현행 제네바협약은 4개의 협약과 2개의 의정서로 되어있으며 국제인도법의 기본 틀이다.

4개 협약

1. 육전에서의 군대의 상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2. 해상에서의 군대의 상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3.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4.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

추가 의정서

5. 1949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6. 1949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5. 국제인도법을 이루는 주요 조약들

1864년 제네바 협약이 제정, 채택되면서 발전된 국제인도법은 새로운 형태의 무력충돌과 신무기의 개발에 따른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864년 전지(戰地)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1864년 제네바 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

1868년 400g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성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선언

1899년 헤이그협약 - 육전에서의 전쟁법규와 관례준중

1906년 제네바 제협약 개정 및 발전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신규 제정)

1925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 방법을 전쟁에 사용할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채택

1929년 2개의 제네바 협약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

-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의 상태 개선

- 제3협약: 포로의 대우

- 제4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 (신규 제정)

1954년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의정서

1972년 세균(생물학적) 무기 및 독소(毒素)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BWC협약)

1976년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 환경변형 기술의 군사적, 적대적 사용 금지

1977년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에 추가되는 2개 의정서 제정:

- 제1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 제2의정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1980년 과도하게 위해하거나 또는 무차별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CW 협약)

- 제1의정서: 탐지불능 쇄편(碎片)무기에 관한 의정서

- 제2의정서: 지뢰, 위장성(偽裝性) 무기 및 기타 장치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 제3의정서: 소이성(燒夷性)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1993년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과 이들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약(CWC협약)

1995년 실명(失明)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1980년 CCW협약의 제4의정서)

1996년 지뢰, 위장성(偽裝性) 무기 및 기타 장치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된 의정서 (1980년 협약의 개정된 제2의정서)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移轉) 금지와 이들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약(오타와협약)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채택(ICC 로마규정) (2002년 7월1일자 발효)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국제인도법과 전쟁범죄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은정

1. 이라크 전쟁과 국제인도법

전쟁은 전의를 가진 국가간의 무력적 수단에 의한 투쟁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금지되었고 위법화되었다. 전쟁이 법적으로 금지된 오늘날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의 전쟁법규보다 전쟁 자체의 금지가 국제법의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무력충돌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순전히 전쟁을 포함한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자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국제 인도법은 다음과 같다.

(1) 제네바 제4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차 세계대전의 체험을 상기하여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전시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무력충돌의 희생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인도적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 및 점령의 경우에 있어서, 교전당사국내의 외국인 또는 점령지역내의 주민이 교전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안전에 유해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불리한 차별을 두지 않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실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존중의 사상에 입각한 국제

적 인도법전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2) 추가 1의정서 -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이 제정된 후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기타 아프리카 무력분쟁에서 제기된 게릴라 전투원의 처우문제, 민간 항공기와 그 승무원의 문제 등 기존의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문제와 무력충돌 중의 공중폭격·새로운 전쟁방법 및 신무기로부터 모든 민간인을 최대한 보호하기에 불충분하여 이에 대하여 2개의 추가의정서로 1977년 6월 8일 채택되었다. 2개의 추가의정서는 130개의 조문에 2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졌다.

제1추가의정서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3) 헤이그협약-전시문화보호협약

전시문화보호협약(헤이그협약)은 문화재가 전쟁에서 심대한 피해를 받으며, 전쟁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재가 점점 더 파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되어 1954년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어떤 민족의 문화재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하고, 문화유산은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위 협약을 만들게 했다. 문화재관련 기타 협약으로는 △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4)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적대적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 환경무기금지협약

환경무기금지협약의 목적은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 예를 들면 태풍진로 전환, 강우제, 강설제 등 첨단 환경변경기술 뿐 아니라 재래식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에 의한 대량의 환경파괴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환경의 변경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인정하나 그러한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용에 따른 인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용에 따른 인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을 실효적으로 금지하기를 희망을 목적으로 1976년 2월 UN총회에서 총회결의로 채택되었다.

(5)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일명 ICC라고 한다.

ICC는 집단학살죄(국민 민족 인종 종교적집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한 살인),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민간인에 대한 공격, 살해, 노예화, 강간, 강제이주, 강제 임신, 성적 노예화 등의 성폭력, 인종차별)등 4가지를 관할하게 된다.

제2차 대전 전범의 처벌과 르완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의 반인도적 사건 주모자처벌목적으로 특별재판소형태인 전범재판소를 설치했으나 유엔총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

설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1998년 7월 17일 채택하게 되었다.

2. 전쟁범죄¹⁾와 국제인도법

그간 국제법은 전쟁시에 민간인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데 인색하였고,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민간인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무기와 전쟁방법이 개발되었지만 민간인보호에 대한 조치와 제재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제인도법에 민간인, 민간물자, 환경 그리고 문화재 보호에 조항과 그리고 최첨단무기인 대량살상무기의 규제를 살펴보면

(1) 민간인

민간인²⁾이란 군대에 소속하지 않고 또 적대행위에 가담치 않은 자, 군대와 교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하는데, 민간인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는 일단 민간인으로 간주하며 민간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인들이 민간주민 내에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주민의 민간적 성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1의정서 50조 1항)

보호내용 :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로마규정 8조 2항 나 1)과 민간주민 자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공포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폭격행위 및

1) 전쟁범죄는 규율대상과 시간적 요소를 기준으로 '전시범죄'와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반하는 죄'로 구별. 전시범죄는 전시법규 및 국제인도법규에 대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반하는 죄는 전쟁의 개시·수행에 관한 실제적 국제법규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 무력충돌지역내에서 위험한 직업적 임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제1의정서 79조)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예방조치

1) 공격에 있어서의 예방조치

- 1)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과도한 것으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격은 취소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 3) 민간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공격에 관하여 유효한 사전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2)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 1)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자를 군사목표물의 인근으로부터 이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군사목표물을 인구가 조밀한 지역내에 또는 인근에 위치하게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3) 군사작적으로 연유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무차별폭격)은 금지된다.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

- 3) 무차별폭격이란 ①특정한 군사목표물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②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또는 ③그것의 영향이 제1의정서가 요구한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 4)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은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국영 TV방송사 건물을 폭격했다. 인권단체와 세계언론은 '공격은 군사목표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방송국을 민간시설물로 확대 해석해 맹비난했지만, 미국은 '민간시설물이라도 군사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용될 경우엔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 5) 52조에 부여되는 일반적 보호는 그것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문명화된 조치나 보호를 갖추지 않은 한낱 선언에 불과하며, 민간물자를 직접적 공격으로부터만 보호받게 되어 있을뿐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위협으로부터는 무방비상태이며, '민간물자'에 관한 정의의 모호성과 군사목표물에 관한 정의의 현저한 주관성으로 군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 임의

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 내에 위치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과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제1의정서 51조)

또한 교전당사국은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 병원·안전지대 및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제네바4협약 14조)

그리고 보복의 수단으로서 민간주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제1의정서 51조 6항)

(2) 민간물자

민간물자란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건물·사업장·시설들을 말하며 민간물자)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1의정서 51조)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동 52조)

보호내용 :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제네바4협약 18조),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에게만 향하는 의료품 및 병원용품, 그리고 종교상의 의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용하여야 한다.(동 23조)

- 4)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은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국영 TV방송사 건물을 폭격했다. 인권단체와 세계언론은 '공격은 군사목표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방송국을 민간시설물로 확대 해석해 맹비난했지만, 미국은 '민간시설물이라도 군사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용될 경우엔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식료품·식료품생산을 위한 농경지역·농작물·가축·음료수 시설과 그 공급 및 관계시설과 같은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물건들을 공격·파괴·이동 또는 무용화하는 것은 금지된다.(동 54조 2항) 그리고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즉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 56조 1항), 예배장소, 가옥이나 기타 주거 또는 학교와 같이 통상적으로 민간목적에 전용되는 물건이 군사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의정서 52조 3항)⁵⁾

민간 대상물, 즉 군사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로마규정 8조 2항 나 2)과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은 금지된다.(동 5)

(3) 환경

환경변경기술(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이란 자연과정의 고의적 조작을 통하여 지구(생물상, 암석권, 수권 및 대기권 포함) 또는 외기권의 역할, 구성 또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환경변경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과정의 파괴를 지진, 해일, 일정지역의 생태학적 균형의 파괴, 날씨의 변화(구름, 강우, 태풍, 폭풍 등), 기후의 변화, 해류의 변화, 오존층의 상태변화 및 전리층의 상태변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5) 52조에 부여되는 일반적 보호는 그것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문명화된 조치나 보호를 갖추지 않은 한낱 선언에 불과하며, 민간물자를 직접적 공격으로부터만 보호받게 되어 있을뿐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위험으로부터는 무방비상태이며, '민간물자'에 관한 정의의 모호성과 군사목표물에 관한 정의의 현저한 주관성으로 군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 임의로 판단함으로써 실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등 문제점이 있다.

보호내용 :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중에 주의조치가 취하여야 하며(제1의정서 55조) 또는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동 35조 3항). 그리고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로마규정 8조 2항 나 4))는 금지된다.

이러한 보호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그러한 손상을 끼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존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의 사용금지를 포함한다.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제1의정서 55조)

격심한 효과를 미치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사용을 금지한다.(환경무기금지협약)

(4) 문화재

문화재란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건축, 예술, 역사의 기념물과 같이 모든 국민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갖는 동산 또는 부동산 문화재, 고고학적 유적지, 하나의 전체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인 관심사가 되는 건축물의 집단, 예술작품,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심사가 되는 고본, 서적 및 기타 물건들, 과학적 수집품, 중요한 장서 등이다.

보호내용 : 국민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를 목표로 한 모든 적대행위를 범하는 것과 물건을 보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제1의정서 53조)을 금지한다.

문화재와 그의 직접 주변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장비를 전시에 파괴나 손상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문화재의 어떠한 형태의 절도, 약탈, 불법사용 및 문화재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문화재 파괴행위도 이를 금지하고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종식시

켜야 한다. 동산문화재를 강제로 징발해서는 안된다(헤이그 4조).

문화재가 군사작전에 의하여 손상을 받아 그 문화재를 보존할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5조)

(5) 특정무기 금지

어떠한 무력충돌의 경우라도 적을 해하는 수단 선택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성질의 무기·발사체 및 전투물자와 방법,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극심한 손상을 줄 전투방법 및 수단은 금지된다(제1의정서 35조).

내용 : 금지된 무기에는 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육전규칙 23조 1항), ② 독 또는 독으로 가공한 무기(동(a)), ③ 밀실성 가스나 유독성 가스의 살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투사물(독가스금지 선언 1항), ④ 세균학적·생물학적 독소무기 ⑤ 중량 400g 이하의 불사물로서 폭발성·소이성의 물질은 충전한 것(상트페테르부르크선언) ⑥ 덩덩탄(덩덩탄사용금지선언), ⑦ 핵무기, ⑧ 화학무기, ⑨ 환경변형기술의 적대적 사용, ⑩ 특정재래식무기, ⑪ 대인지뢰 등이 있다.

그리고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에 있어서 계약당사국은 동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계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제1의정서 36조)

3. 국제형사재판소와 전쟁예방

지난 세기 인류는 분쟁을 통한 수많은 대량학살과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만행을 목격했고, 국제인도법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상황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도 민간인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 민간인의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번 전쟁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인류는 제대로 처벌한 경우가 드물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런 인류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제사회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소급되지 않는다. 로마규정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 관할할 수 있고,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国籍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3년 3월 전세계가 한 목소리로 전쟁을 반대했고, 끝내는 유엔안보리의 승인없이 미국은 무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드디어 이라크전쟁의 전쟁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침략범죄의 재판관할권(비당사국의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러므로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 이라크를 침공하더라도 침략범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2002년 7월 12일 미국은 '비당사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를 1년간 면책한다'는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서 강행통과시켰고, 지난 6월 12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라크전쟁 중에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반국제형사재판소 정책은 2001년 12월 31일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나 의회의 비준을 계속 미뤄오다가 급기야 지난 2002년 5월 서명자체를 철회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미군의 기소면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한술 더떠 각국 정부에 ‘미국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처벌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나라들에게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루마니아, 동티모르 등은 면책특권협정에 서명하였고, 최근 많은 나라들이 이에 서명하고 있다.

이러한 불처벌협정은 국제법상 명백히 불법인 것이다. 미국의 불처벌협정 체결 시도는 인류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난 십여년간 계속되어 온 국제적 노력을 단번에 훼손시키려는 행위인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반인도적 범죄를 항시적으로 억제시키는 예방의 역할에 있는 것이다.

법규 강화와 범죄자 처벌이 범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는 더 이상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인류의 간절한 바람이자 희망이다.

참고문헌

이병조, 이중범 공저,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2.

대한적십자사(<http://www.redcross.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2002.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전쟁범죄 개요

다산인권센터 정상용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한 수많은 피해들의 대부분은 미·영 연합군의 무차별 공습에 의해 발생되었다. 미 공군중부사령부(CENTAF)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투하된 폭탄의 상당수가 적의 군사시설보다는 전장을 광범위하게 피격해 부수적 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총 1만 8898곳의 공중폭격 중 이라크 정권 지도부나 군 지휘부 등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전체의 9.5%인 179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¹⁾이다.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보여진 미·영 연합군의 공습은 군사목표물에 대한 정밀 폭격이 아닌 ‘충격과 공포’를 위한 무차별 폭격이었으며, 그러한 행위는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법규들, 국제 인권조약과 규정 및 협약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였다.

비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

모든 분쟁에서의 공격대상은 군사목표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군사목표물이란 “성격이나 목적, 위치상 상대국의 군사작전에 실질적인 기

1) 로마규정 제8조 2항 ‘나’의 (4)

“여를 할 수 있는 시설”²⁾로 그 외의 모든 대상들은 비 군사목표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영 연합군은 특정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세히 보도된, 3월 26일 미군의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국영 TV방송사에 대한 폭격은 명백히 민간시설에 대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폭스 뉴스, MSNBC, CNBC, NBC,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오히려 “놀랍게도 미국은 아직 이라크 TV방송국을 제 거하지 않았다”며 민간시설인 이라크 국영 TV방송사에 대한 공격을 중용하였다. 전쟁에 대한 참상을 보도하고, 후세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라크 방송사를 폭격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이라크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목적이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곧 성명을 발표하고 “바그다드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방송국에 대한 미국의 폭격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기자연맹(IFJ)도 “방송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이라크 언론에 대한 검열행위”라며 비판하였다.

미·영 연합군의 민간시설 파괴는 치밀하고도 전략적으로 행하여졌다. 개전 초기 이라크 제2의 도시 바스라를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며, 와파 알-카이드담을 파괴하였다. 이로 인해 수력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파괴되어 전력과 수도물의 공급이 차단되었다. 3월 21부터 바스라시 200만 시민에 대한 식량과 식수 등 생필품의 공급 역시 차단되었다. 국제적십자사 대변인 플로리안 웨스트펠은 “바스라 주민 60%가 식수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사는 또한, 4월 5일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교량이 공습에 의해 파괴되었다며, 교량의 파괴로 인해 “바그다드 남부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접근의 차단으로 케르발라, 나자프 등지의 민간인 부상자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미·영 연합군의 일방적인 공격은 3월 26일 루트바의 어린이병원 폭격, 3월 27일 바그다드 커뮤니케이션즈타워 폭격, 3월 28일 바

2) 제네바 협약 1장 52조 2항

그다드 시내 시장 폭격, 4월 2일 바그다드 시내 적십자사 산부인과병원 폭격 등 민간시설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행해지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민간차량에 대한 조준사격, 4월 8일 외신기자들이 머물고 있던 바그다드 시내 팔레스타인 호텔에 대한 미군 탱크의 포격, 나시리야 의약품 창고의 폭격, 교량과 도로, 통신시설 파괴 등으로 이라크 전체를 공포로 몰아갔다. 이로 인한 이라크 상황을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전력의 차단과 식수공급의 불안정, 도로 등 접근로의 차단으로 인해 부상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4월 2일 미군은 ‘이라크의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좀더 조직적인 공격을 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이동 대공포 등 이라크 전력에 대한 공중 폭격과 함께 식수, 전기, 통신, 도로, 하천, 교량 등 기간 망을 장악한 후 내부 분열을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아하론 지비 이스라엘 정보사령관의 인터뷰는 정밀 폭격을 통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무력화가 아닌, 이라크 민중의 생존에 불가결한 요소를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³⁾를 미·영 연합군이 전술적으로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인 학살

앞에서 살펴본 비 군사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행위는 곧 직접적인 민간인들이 피해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미국의 NBC방송은 4월 8일 보도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2천 7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 조사연구원과 반전 운동가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단체 Iraqbodycount.net의 통계를 따른 것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6월 30일 현재까지 Iraqbodycount.net의 통계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의 수는 최소 6011명에서 최대 7653명에 이르

3) 제네바 제4협약 3절 54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호’

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정은, 민간인에 대한 타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민간인을 우선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영 연합국의 공격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일선 장병들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8~35세의 이라크 남성들은 모두 ‘군인’으로 간주 할 것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민간인을 이라크의 비정규군 또는 테러범으로 추정토록 하는 전투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미군 측은 자살폭탄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민간주민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명령이 있는 후 나자프, 샤프라, 바그다드, 나시리야 등 미군 검문소에서는 민간인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총격으로 약 127명이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Iraqbodycount.net을 기초로 하여 통계를 추정한 결과 공습에 의한 피해 사례가 77.4%⁴⁾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첨단 정밀 유도 미사일을 이용한 정교한 공격으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미·영 연합군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개전 초기 이라크 전역에 걸친 대규모의 공습으로 약 450여명이 사망하고, 35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격은 나자프, 바그다드, 바스라 등의 도시들에 집중되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3월 23일과 24일 이틀동안만도 민간인 98명이 사망하고, 490명이 부상당했다고 무함마드 사이드 앳 사하프 이라크 공보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알 자지라 방송 역시 23일 남부 바스라에 대한 미군 F-16 전폭기의 공습으로 민간인 50여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후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미·영 연합군의 공격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인 주요 피해사항은 3월 26일 바그다드 시내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으며, 27일과 28일 나자프 민간인지역

4) 이 수치는 평화권모임이 4월 8일까지의 Iraqbodycount.net을 기초로 하여 민간인피해자 수를 유형별로 나누어 통계를 계산한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된 민간인 피해 숫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음을 밝혀둔다.

에 대한 폭격으로 75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28일 바그다드 알 나세르 시장에 대한 폭격으로 100명의 사상자가 났다.

공습은 바그다드의 빈민촌 슈알레(Shu'ale)에서도 일어났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 기사는 폭탄이 건물 파괴용이 아닌 인명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미사일이 터지면서 금속 파편 더미가 사람들, 주로 여성과 아이들에게 떨어졌으며, 벽돌로 허술하게 지은 집의 벽을 뚫고서 사람의 사지와 머리를 잘라버렸다. 시장 맞은 편 큰길가 벽돌집 거실에 있던 세 형제의 몸을 베고, 두 집 건너에 사는 자매 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슈알레 마을은 가난한 시아파 무슬림의 거주지역으로 알 누르 병원의 한 의사는 최소한 어린이 15명을 포함하여 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습은 바그다드를 비롯하여, 바스라, 나자프, 코말, 모술, 나시리아, 루트바, 힐라 등 이라크 주요도시와 이라크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병원, 시장, 농장, 민간인 차량, 이슬람 성지, 민간인 주거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공습, 시가지에서의 직접적인 조준사살 등 민간주민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교전규칙을 무시한 행위였다. “우리는 민간인 몇 명을 쏘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뉴욕 타임즈의 해병대 하사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미국이 이라크 정권과 군대만이 아닌 이라크의 어린이들과 여성, 노인 등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생명과 환경에 대한 재앙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전 세계 113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사회는 이곳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간은...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정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

“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와 개선에 책임을 진다.”는 선언은 지구의 미래와 인간의 생활하는 공간인 지구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 반영이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와 생명의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는 오존층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1974년, 비엔나), 바젤협약(1989년, 스위스), 리우회의(1992년, 브라질) 등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의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제3차 당사국총회의가 개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최종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2001년 3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이 돌연 탈퇴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무산되었다.

산업화 이후,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행되어온 지구 환경파괴는 결국 인간의 생활환경까지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생물종의 멸종, 지구온난화 등은 국경의 경계가 없었다. 한 나라에서 자행한 환경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는 지구 전체의 위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탈퇴와 같이 미국이 자행한 일련의 행동은 “하나뿐인 지구” 공동체의 파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환경문제의 총체적 확장이란 면에서 전쟁은 녹색별 지구에 대한 가장 큰 재앙이다. 이번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의 구체적인 상황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91년 걸프전과 과거의 전쟁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환경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라크 민중을 포함한 인류와 지구전체는 또 한 번 엄청난 파괴에 직면한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⁵⁾

첫째, 무기 공장과 정유소와 같은 산업, 군사 지점을 표적으로 함에 따라 심각한 화학적 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 코소보 전쟁에 관해 UNEP(유엔 환경계획)가 작성한 리포트에 따르면 군사적 행동이 전반적인 ‘생태적 재앙’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습 중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물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몇몇 국지적 지역”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라크전에서 사용될 특정 무기 또한 환경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고려 대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열화 우라늄(DU)탄이다. 열화우라늄탄은 먼지와 파편으로 부서져 대기 중에 우라늄 산화물을 방출한다. 영국 핵에너지 당국이 제작한 쿠웨이트에 관한 ‘위험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로 들이마셔진 50톤의 열화우라늄은 수십년에 걸쳐 약 50만명의 추가적인 암 사망자를 유발 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전쟁은 또한 그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 이라크의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특히 철새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 유엔환경계획의 2003년 3월31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남부 유전과 석유로 가득한 참호,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독성연기와 화염은 이라크의 피폐된 환경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⁶⁾ 이러한 유정의 화재는 1991년 걸프전에 비하면 규모가 적지만, 인근 지역에 계속되는 스모그를 형성시키고 있으며, 유황, 수은, 다이옥신, 푸란 등의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3월 31일

5) War in Iraq to have “devastat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say green groups / Duncan McLaren, Roger Higman, Lan Willmore 작성 /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번역

6) Air pollution from Baghdad fires poses risk for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says UNEP

자 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일곱 개의 석유저장고 중 세 개의 저장고에서 아직까지 화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에 대해 유엔환경계획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포격과 전투 비행에서의 배출가스가 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할로겐과 프레온 등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사용이다. 1987년 채택되고 1989년 1월부터 발효된 ‘오존층 파괴물질은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감축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전투 비행은 6만~8만 번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2천의 할로겐이 방출되었다. 특히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적군에게 감지가 될 수 있는 배기가스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프레온 연료 첨가물을 사용했다. 몬트리올 의정서로 세계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전세계가 3개월 동안 내뿜는 양이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⁷⁾

계속되는 공습과 군수차량과 병력의 다량이동 등 대규모의 군사작전으로 발생한 모래폭풍은 이라크의 자연과 농업생태계에 피해를 주었다. ‘사막의 피부’라 부르는 견고한 지표면이 군용차의 이동, 공중폭격이나 지뢰의 폭발 등으로 침해되면서 내부의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에 노출되는 것이다.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은 공기를 타고 북부의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죽어 시달리고 있는 이라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르네블로프 교수는 진단하였다.

한편, 국제조류보호단체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겨울 철새들의 서식처 파괴를 지적하였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7) 예르네블로프, 스위스 IASA 환경생화학 교수

강을 끼고 있는 이라크 남동부 메소포타미안 습지대는 조류 수천종의 서식지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더욱이 3, 4월은 철새들의 이동시기로 ‘철새들의 번식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구환경동향보고는 밝히고 있다. 메소포타미안 습지대를 포함한 이라크의 습지 33곳은 1993년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습지는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적색목록에 포함된 적어도 7종여의 포유동물과 조류 수천종의 삶의 터전이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1만 5000km²에 달하던 메소포타미안 습지대는 91년 걸프전 이후 대부분 파괴되어 0.3%인 50km²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남아프리카에 이르는 범지구적 생물다양성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도깨비쥐(몸길이 최대 28cm의 큰 쥐)와 수달류는 거의 멸종했고 이 지역 선주민 마단(ma'dan)인들도 대부분의 생활 근거를 잃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듯 총체적인 환경 재앙과 함께 많은 이들은 특히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분쟁사후평가부서에서는 2001년 코소보, 2002년 세르비아와 모테네그로, 2003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열화우라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를 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토양을 통해 여과된 열화우라늄으로 인한 토양오염, 공기중의 열화우라늄 먼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해 지적하였다. 실제로 유엔환경계획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에서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지 7년이 지난 뒤에도 대기와 지표수에 열화우라늄 물질이 잔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라크 암 연구소 또한 91년 걸프전 때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지역에서 백혈병 발병이 180%~350%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래판 중령은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열화우라늄탄의 환경 피해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이 없다”며 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잔해를 제거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서형원 환경운동연합 평화운동 부장은 “21세기의 첫 전쟁은 세계 최대

부국 미국이 하루의 삶을 걱정해야하는 처참한 비극의 땅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퍼부어 대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인류의 미래를 불안한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별 지구'는 그물처럼 엮인 생명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작은 문제가 전체 생명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전쟁이라는 대량의 살상, 파괴 물량전이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동맹국에 의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전쟁은 대량소비와 군비경쟁, 자원낭비와 부의 불평등의 구조가 만들어낸 최악의 환경파괴이다. 자원의 확보와 한계없는 성장만을 강요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전쟁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문화재파괴

인류 사회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지식 등의 축적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여왔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유형·무형의 문화재는 과거 역사의 증거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경험과 지혜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 중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에 대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의 자연적 인위적 파괴와 손상으로부터 인류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과 자연환경의 파괴가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에서 문화유산의 파괴 또한 예외일순 없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유산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원칙' 등을 통해 전시에 자행되는 문화유산의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각지의 박물관에서 사라졌다"는 이라크 외교관 니자르 함둔의 말처럼 이번 전쟁에서 문화재에 대한 약탈과 파괴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는 흔히 말하는 '4대 고대문명' 중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도시인 '우르'가 탄생했고 스메르, 아시리아, 바빌론 등 여러 제국들이 융성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세계 최초로 문자 기록을 남겼고 처음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또 어떤 인류보다 먼저 도자기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은 문화인들이었다. 또한 이라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로, 바그다드 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유적과 9세기에 지어진 모스크 등 수많은 종교유적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함무라비 법전과, 바빌론, 아시리아 제국의 왕궁이 있었던 남루드,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된 고대도시 에르빌 등 이라크 곳곳에 2만5천여개의 세계적인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으며,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은 유적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유네스코는 밝히고 있다.

정확한 문화유적에 대한 피해 발표는 나온바 없지만 유네스코는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선 알-주후르궁이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고 전하였다. 또 대부분의 유물들이 벽돌 건축물로 지반이 취약한 사막이나 도심의 이라크 정부청사들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큰 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물관의 약탈로 인한 피해도 크다. 28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고고학 박물관인 이라크 국립박물관은 총 30만점의 유물 중 17만점 가량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하였다. 이 중에는 '인류 최초의 기록물'이자 '문자의 효시'인 수메르인의 점토판 조각들과, 인류 최초의 설화문학인 '길가메시 서사시' 서판(書板)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라크 국립박물관을 제외한 바그다드의 8개의 박물관과 모술, 티크리트 등 지방에 위치한 박물관의 피해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명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언

문보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는 용이치 않았다.

다만, 메소포타미아문명이 발생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신바드의 모험'이나 '알라딘의 램프'에서 보듯 고도(古都) 바그다드는 세계인에게 친근한 도시이기도 하다. 미국과 영국의 바그다드와 인근 도시들에 대한 집중 포격, 루트바에서 바그다드로 향해 진행되었던 대규모 지상작전 루트 등을 통해 문화재의 파괴가 예상되며, 4월 9일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점령이후 치안 부재 상태에서 일어난 각종 약탈 사건들 또한 심각한 문화재 손실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2부 이라크 민간인 피해 일지

3월 30일

3월 31일

3월 31일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피해

3월 20일

- 1 공격지역·대상 루트바에 위치한 세관건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에 의해 민간인 1명 사망

- 2 공격지역·대상 요르단 접경 바그다드-암만 고속도로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미사일 폭격으로 민간인 1명 사망

이라크 통신센터 주변도로에서 요르단인 택시운전사가 사망했다.
(출처: UPI, Reuter)

3월 21일

- 3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소재 정부건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3명 사망

바그다드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으로 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미사일과 폭탄 파편에 의해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출처: 연합뉴스)

3월 22일

- 4 공격지역·대상 오전 11시 30분, 바스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집속탄이 사용된 공습, 민간인 50~77명 사망

미영 연합군 전폭기들이 바스라 외곽에 대한 공습을 시작, 50명이 사망함(The Independent), 모하메드 사이드 알-사하프 이라크 공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77명이 숨지고 366명이 부상했다고 밝힘(출처: 연합뉴스)

- 5 공격지역·대상 티그리트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에 의해 민간인 4~5명 사망

- 6 공격지역·대상 임만 아나스의 이라크군
공격무기·민간인피해 포격으로 인해 민간인 1명 사망

사망자: 테리 로이드(Terry Loyd, 50세) 영국 ITN 특파원. 임만 아나스에서 바스라로 이동중 타고가던 차가 미영 연합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포격을 맞아 사망함. 그와 같이 보도차량을 타고 있던 언론인 프레드 네락(Fred Nerac)과 통역자 후세인 오트만(Hussein Othman)은 실종됨. 다른 차량에 탔던 카레라만 다니엘 디모스티어(Daniel Demoustier)가 폭격후 탈출에 성공해 이같은 상황을 증언함(출처: Electroniciraq.net)

- 7 공격지역·대상 안사르 알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57~100명 사망,

22일 새벽,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이슬람 무장단체 안사르 알-이슬람을 공격함. 이때 사용된 미사일 수는 70기. 부시 정부는 이 단체가 알카에다와 연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4기의 미사일은 이웃 마을 코말, 다른 이슬람 단체인 코말라가 위치한 지역에 떨어졌다. 코말에서는 오마르 모하메드 사에드 씨를 비롯해 최소 33명이 사망했다. 코말라는 사담 후세인에 대한 반정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단체로, 이 지역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진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출처: The Guardian)

- 8 공격지역·대상 이라크 북부 모술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4명 사망,

요르단 정부 관리는 22일 미영 연합군의 폭격을 피해 차량을 몰고, 이라크 북부 모술을 빠져나가던 4명의 요르단 대학생들이 차량 근처에 떨어진 미사일에 의해 숨졌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22일 밤 모술에 있던 학생들의 차량 근처에서 미사일이 폭발해 숨졌다고 이들은 사고당시 이라크를 떠나려던 중이었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9 공격지역·대상 나시리아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집속탄 공격으로 민간인 10명 사망,
 사담 병원의 외과외에 따르면, 집속탄 3-4기가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 10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다쳤다고 함.(출처:The Guardian, ArabNews)

10 공격지역·대상 알 루트바지역, 시리아인을 태운 버스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대지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5명 사망,
 시리아 노동자 37명을 태우고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돌아가던 버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춘 사이, 미영 연합군의 미사일 폭격을 맞아 승객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출처: Bakutoday)

11 공격지역·대상 카발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10명 사망, 32명 부상
 공습으로 인해 카발라의 시아파 이슬람 성지에 있던 1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쳤다.(출처: Bakutoday)

12 공격지역·대상 바스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집속탄 공습, 민간인 77명 사망, 366명 부상
 미영 연합군 전투기가 오전 11시 30분경 바스라 외곽지대부터 시작해 민간인 주거지역까지 폭격했다. 이라크 측에 따르면, 피해의 대부분은 집속탄에 의한 것이었다. (출처: Reuter, AFP, 아랍뉴스)

13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서쪽 알 아자미야 부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대지미사일 공습, 민간인 5명 사망
 미군 전폭기가 알 아자미야 부근 바그다드 인구 밀집지역에 폭격을 해 민간인 다섯명이 사망했다. (출처: BAKU Today)

14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북부(아드히미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미사일 또는 폭탄에 의해 민간인 5명 사망
 정오경 민간인 가구가 폭격을 당해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칼릴(Khalil)씨 가족중 아이 다섯을 둔 엄마, 움 아퀼, 며느리 사할씨가 죽고, 움 아퀼씨의 아들 둘과 딸 하나는 다쳤다. (출처: WP)

15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외곽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민간인 1명 사망
 바그다드에서 피난 온 가족이 머물던 시 외곽의 농장이 폭격을 당해 8살 난 여자아이, 파테하(Fatehah)가 사망하고, 나머지는 부상당했다. 파테하는 여전히 무너진 집터미 아래 깔려 있다. 24일밤 바그다드 시내 병원으로 실려온 가족을 통해 확인 한 것임(출처:Iraq Diaries)

16 공격지역·대상 나시리아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민간인 13명 사망
 나시리아에 대한 미영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 민간인 13명이 사망하고 537명이 부상당했고 가옥 200채가 파손됐다고 모하메드 사에드 알-사하프 이라크 공보장관이 밝힘(UPI,AFP)

- 17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북부 알 샤브 근방 주거지역 및 시장
- 공격무기·민간인피해 크루즈 미사일 2기, 민간인 14~15명 사망

26일 오전 바그다드 북부 주거지역이자 시장이 있는 알 샤브에 2기의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14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출처:Iraq Diaries)

- 18 공격지역·대상 시리아에서 바그다드로 가는 도로의 교차로
-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미사일 공습으로 민간인 16~17명 사망

26일 오후 5시 30분경 민간인 승객들을 태우고 시리아부터 바그다드로 가던 3대의 버스가 교차로(부근에는 주요소와 작은 가게가 있음)에 가까이 갔을 때, 승객들은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는 것을 보았다. 앞쪽에 있는 다리를 폭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던 미사일이 선두에 가고 있던 버스 앞에서 터졌다. 다행히 버스는 곧바로 멈춰 섰고 몇몇 승객들은 탈출했으나, 버스안에는 피신을 못한 16~17명의 승객이 있었고, 다음에 날라온 미사일이 버스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두 번째 버스와 세 번째 버스는 첫 번째 버스가 급정거해서 충돌했고, 첫 번째 버스의 폭파 파편에 맞아 파손되었다.

부상자들은 몇시간 기다린 후, 이들을 이송하기 위해 온 버스를 타고 바그다드로 갔다. 그들이 구조되어 이송되면서 본 목격담에 의하면, 부서진 버스 위로 여전히 미사일 공격이 진행중이었다고 한다.

- 19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21명 사망

바그다드 시내에 대한 공습으로 건물이 심하게 파괴되었고, 그 건물들 주변 도로에 최소 15구의 시체가 늘어져 있었다. 불길기 주변의 차들에서 치솟았다. (Islamonline.net) 26일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민간의 희생자 수(알 샤브 근방 시장에서의 희생자 포함)는 모두 36명이고 부상자 수는 215명이라고 이라크 보건장관이 밝혔다(The guardian)

- 20 공격지역·대상 루트바에 위치한 어린이 병원
-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2명 사망

미국인 평화운동가들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루트바 어린이 병원에 폭격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Iraq Diaries)

- 21 공격지역·대상 모술
-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2~50명 사망

- 22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이라크 보건장관 우미드 미닷 무바라크는 12시간동안 최소 13명이 사망했으며, 바스라에서는 구급차 운전사와 의료팀들이 미영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UPI 3월 27일자)

- 23 공격지역·대상 나자프 중부 민간인 거주지역
-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집속탄 공습, 민간인 75명 사망, 268명 부상

이라크 공보장관 무하메드 알 사에드 알 사하프는 미영 연합군의 민간인 지역 폭격으로 27일까지 26명 사망, 60명이 부상했으며, 28일에는 49명 사망, 208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들 모두가 집속탄의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영국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 3월 28일자)

24 공격지역·대상 와셋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2명 사망

25 공격지역·대상 바벨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26명 사망

26 공격지역·대상 카발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11명 사망

27 공격지역·대상 나자프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집속탄 공습으로 민간인 26명 사망

28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알 알위야 지역, 통신탑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7명 사망

29 공격지역·대상 미산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2명 사망

3월 28일

30 공격지역·대상 모술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50명 사상

알 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군사목표물이 없는 민간인 지역에 대한 미영 연합군의 대량폭격으로 7채의 집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러명의 여성들과 최소한 50명의 아이들이 다쳤다고 한다. (AFP 3월 28일자)

31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알 나세르 시장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62명 사망, 49명 부상

32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및 바그다드 남쪽 110km 케르빌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14명 사망, 92명 부상

공보장관 사하프에 따르면 공습으로 바그다드에서 7명 사망, 92명이 부상당했으며, 케르빌라에서도 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로이터 3월 28일자)

3월 20일~4월 15일

33 공격지역·대상 나자프 병원 3곳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집속탄 포함한 다양한 무기, 224~258명 사망

4월 2일 ~ 4월 3일

34 공격지역·대상 알 타냐 및 알 아지지야 주둔 공화국 수비대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레이저 유도탄과 코브라 헬기공격으로 43명 사망

3월 27일 ~4월 12일

35 공격지역·대상 힐라 및 힐라 부근 지역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집속탄을 포함한 폭격으로 78명~201명 사망

4월 5일

36 공격지역·대상 라시디아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공습으로 민간인 91명~99명 사망

집속탄 및 불발탄 폭발로 인한 피해

3월 29일

- 1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술라 인근의 시장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군수품 폭발로 인해 55~68명 사망, 50명 부상

바그다드의 시장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민간인들이 부상 당했다. 이라크공보장관에 따르면 58명 사망, 약 50명이 다쳤고, 알 누우르(Al Noor) 병원의 의사는 55명 사망, 47명 이상 부상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스카이뉴스 3월 29일자)뉴욕타임즈에는 68명 사망으로 나옴.

4월 7일 ~ 4월 15일

- 2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서남쪽, 알 카르노크 부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불발 집속탄 폭발 혹은 공습으로 4명 사망

라시드 마지드, 마지드의 두 아들 아르칸, 가산, 우다이 케드르가 목숨을 잃었다. 이들이 4월 7일 바그다드 공습당시 목숨을 잃었는지, 아니면 공습이후 알 카르노크에 불발인체 남아있던 집속탄이 폭발해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바그다드 서남쪽에 위치한 알 카르노크는 올리브나무와 부겐빌레아(열대식물 이름) 수풀이 우거진 조용한 도시인데, 죽음의 과일(수풀과 가지 사이사이에 과일처럼 널려 있는 불발 집속탄)이 약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4/17)

4월 11일

- 3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북부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불발 집속탄 폭발로 어린이 2명 사망

불발된 집속탄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났다. 집속탄의 '자(子)폭탄' 중 약 10%가 불발하며, 이것들이 지상에서 강력한 지뢰로 변한다. 특히 자폭탄의 상당수가 밝은 노란 색깔에 음료수 캔만한 크기여서 어린이들이 손을 대다 참변을 당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연합군이 나누어주고 있는 배급식량과 산탄이 똑같은 노란색이어서 어린이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 후세인 하메드씨는 이날 사고도 아이들이 음료수 캔 만한 크기의 물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하메드씨의 아들 알리(10세)도 이날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다. (newsdays 4/15, 지오리포트)

4월 14일

- 4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공격무기·민간인피해 군수품 폭발로 민간인 17명 사망

이라크 북서쪽 알 하브 지역에 위치한 군 설비 보관소에서 일어난 사건. 점령이전 이라크 군의 장비를 보관하던 이 보관소에는 이라크제 미사일을 실은 트럭이 12대 있었다.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자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미사일 발사대를 구경하기 위해 이 곳으로 모였다가 참변을 당했다.

4월 18일

5	공격지역 · 대상	바그다드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불발 집속탄 폭발로 민간인 1명 사망

이라크 소녀가 음료수 캔크기의 집속탄 산탄(M-42" bomblet)을 집어서 미군 쪽으로 다가오다가 폭발사고가 났다(AP 4월 25일자)

4월 9일 ~ 4월 22일

6	공격지역 · 대상	바그다드 북부, 가잘리아 구역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집속탄 폭발로 민간인 21명에서 26명 사망

4월 10일 ~ 4월 17일

7	공격지역 · 대상	나시리아 알 타디아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집속탄 폭발로 민간인 최소 3명 사망

4월 19일

8	공격지역 · 대상	바그다드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M-42집속탄의 자폭탄 폭발로 민간인 3명 사망

4월 20일 경

9	공격지역 · 대상	키르쿠크 동남부에 위치한 키프리지역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집속탄, 대인지뢰, 불발탄등으로 인해 83명 사망

4월 10일 ~ 4월 24일

10	공격지역 · 대상	카할라/덱스 구역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집속탄, 대인지뢰, 불발탄, 최소 29명 사망

4월 26일

11	공격지역 · 대상	자파라니아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군수차량 폭발로 민간인 12명 사망

12	공격지역 · 대상	바그다드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집속탄, 민간인 2명 사망

4월 6일 ~ 5월 3일

13	공격지역 · 대상	카발라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집속탄 자폭탄 폭발로 민간인 35명 사망

5월 1일

- | | | |
|----|--------------|------------------------|
| 14 | 공격지역 · 대상 | 요르단 암만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집속탄의 자폭탄 폭발로 민간인 1명 사망 |

5월 12일

- | | | |
|----|--------------|---------------------------|
| 15 | 공격지역 · 대상 | 바스라 북부 미싼 지방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불발된 이라크군 로켓 폭발로 민간인 9명 사망 |

4월 3일 ~5월 20일

- | | | |
|----|--------------|---------------------------|
| 16 | 공격지역 · 대상 | 바그다드, 바스라, 카발라, 모술, 나자프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불발탄 폭발로 인해 민간인 97~152명 사망 |

6월 9일

- | | | |
|----|--------------|--------------------|
| 17 | 공격지역 · 대상 | 알 디와니아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군수차량 폭발로 민간인 3명 사망 |

민간인 사살과 군중 학살

3월 31일

- | | | |
|---|--------------|-----------------------|
| 1 | 공격지역 · 대상 | 나자프 미군검문소, 민간인 미니밴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기관총 사격으로 민간인 7~11명 사망 |

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경 미 제3보병사단이 나자프시를 떠나는 민간인 차량이 검문소에 접근한 후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다가오자 경고사격 없이 바로 발포하여 7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가디언 4월 1일자)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는 10명 사망, 그중 5명이 다섯살 미만의 어린이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목격자는 사망자가 11명이라고 증언했다

4월 1일

- | | | |
|---|--------------|-----------------------|
| 2 | 공격지역 · 대상 | 샤트라 미군검문소, 민간인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총격으로 민간인 1명 사망, 1명 부상 |

샤트라 남쪽 마을 근처의 검문소에서 미 해병대원들이 철조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을 몰고 오던 한 남자에게 총을 쏘 사망케 했고, 다른 승객 한명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팔레스타인 국제프레스센터 4월 1일자)

- | | | |
|---|--------------|------------------------|
| 3 | 공격지역 · 대상 | 티그리스강 유역 사담 운하에 위치한 교량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총격으로 민간인 1명 사망 |

4 공격지역·대상 나시리아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60명 사망

남부 나시리아에서 미 해병대원들은 심각한 인명손실을 겪은 후 미군에게 접근하는 모든 차량에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선데이 타임즈 기자인 마크 프란체티(Mark Franchetti)는 지난 밤 수십 번의 총성을 들은 후 다음날 아침 총알구멍으로 벌집이 된 15대의 차량과 인근 도로와 도랑에서 12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확인했다. 또, 기자들에 따르면 나시리아 북부도로에는 12대의 불타고 있는 버스와 트럭들 사이로 최소 60구의 시체가 있다고 한다.(가디언 4월 1일자)

4월 3일

5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공항근처 푸랏(Furat), 민간인버스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83명 사망, 120명 부상

로이터 기자에 따르면 미군의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격 과정에서 공항과 바그다드 사이에 위치한 푸랏 마을에서 120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관리들은 8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알 바와바 4월 3일자)

4월 4일

6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미군 검문소, 민간인 버스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9명 사망

바그다드의 미 해병대 검문소에서 제지 명령에 응하지 않은 민간인 버스에 해병대원들이 총격을 가해 어린이 3명과 어머니, 할아버지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하였다. 또다른 차량에서도 4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델러스 모닝뉴스 4월 6일자)

7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동쪽 8km지점 미군 검문소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6명 사망

4월 5일

8 공격지역·대상 카발라, 10세 소년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사망

Nick Boggs 일병과 보병 B사단 3연대는 지난 5일 늦은 오후에 카발라의 경관이 아주 잘 보이는 3층 건물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RPG를 들고 있는 한 이라크 남자를 보았다. 몇 백 피트 떨어진 지점에서 미군은 그에게 발포하였고 그는 죽었다. 그러자 곧 10살이 채 안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타나 그 남자의 RPG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RPG를 잡았다. 그러자 미군은 소년에게 발포를 하였고, 소년은 죽었다. (USA-T 4/8)

3월 20일 ~ 4월 6일

9 공격지역·대상 탈릴리 및 나시리아 부근, 민간인 차량
공격무기·민간인피해 민간인 30명 사망

3월 31일 ~ 4월 6일

10 공격지역·대상 사마와 지역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최소 24명 사망

4월 8일

11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12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노인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사망

4월 9일

13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공항 부근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4~21명 사망

14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구급차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2명 사망

4월 10일

15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북부 알 아다미야, 모스크
공격무기·민간인피해 탱크 포격과 총격으로 30명 사망

4월 11일

16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알 라시드 상거래 지역에서 총격으로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자신의 상점을 지키던 이라크인 1명 사망

바그다드 알 라시드 상업거리에서 자신의 상점을 지키고 있던 민간인 (모하마드 알 바레이니, Mohammad al-Barheini, 25)을 미군이 사살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약탈자들이 상점을 급습하자 모하마드는 칼 라시니코프 기관총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그때 이곳을 지나고 있던 미군에게 약탈자들이 상점 주인을 가리키며 사담후세인의 페다인 민병대 대원이라고 소리치자, 미군은 중화기로 모하마드를 사살했다. (AFP 4/11)

17 공격지역·대상 나시리아 미군 검문소, 민간인 차량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3명 사망, 7명 부상

나시리아 미군검문소 앞에서 미 해병대가 민간인 차량을 향해 발포해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고 7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다. 미군 당국은 민간인 차량이 검문소 앞에서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했으며 미군 당국은 자살공격을 우려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알 자지라 4/11)

4월 11일

18 공격지역·대상 바스라, 은행강도로 추정되는 이라크인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5명 사망

바스라에서 은행강도로 추정되는 이라크인 5명을 향해 영국군이 발포했다. 영국군은 은행강도로 추정되는 이라크 인들이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4월 11일 ~ 4월 12일

19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미군 검문소, 민간인 차량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3명 사망

바그다드 남쪽 교외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던 민간인 차량에 에이브러엄 탱크가 총격을 가했다

4월 20일 ~ 4월 21일

22 공격지역·대상 티크리트 북부, 약탈자로 추정되는 민간인들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12명 사망

20

공격지역·대상 모술, 집회중이던 이라크 군중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10~12명 사망, 100명 부상

새로 임명된 친미 주지사인 마산 알-주부리가 미국을 찬양하는 연설을 할 때, 이에 항의하는 군중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군이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주부리 주지사가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군중들이 “유일한 민주주의는 미군을 (이라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고, 이에 대해 주부리 주지사는 “당신들은 사담 페다인과 한통속”이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군중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으며, 그가 연설을 계속하자 분노한 군중들이 주지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졌으며 그의 차를 전복시켜 차가 폭발했다. 주부리 시장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20명의 미군의 호위를 받으며 시청사로 피신했다. 시청사 위로 올라간 미군들은 군중이 모여있던 인근 건물을 향해 처음 총격을 가했으며, 이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자 미군이 군중에게까지 발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래시안)

21

공격지역·대상 모술, 군중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3~4명 사망, 12명 부상

알-자흐라위 병원 의사 리야드 함디는 “4구의 시체가 병원으로 실려 왔다”고 말했다. 이날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한 경찰관은 약탈자들이 관공서 건물 인근에 있는 은행을 털려고 하자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는 이라크 경찰이 발포했으나 나중에는 관공서 건물 옥상에 배치된 미군이 약탈자들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이에 대해 공원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총격을 가해와 대응 사격한 것일 뿐이라며 약탈자들을 향해 발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4/16)

23

공격지역·대상 바그다드 서쪽 50km 지점 팔루자의 시위군중
공격무기·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13명 사망, 70명 부상

팔루자의 학교에 주둔 중인 미군이 28일 저녁 시위 군중들에게 총격을 가해 13명이 죽고, 70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시위 군중들 중에는 사담후세인의 66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나머지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군들은 학교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 약 2-30여명이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마을 회관에서 모여 미군이 주둔 중인 학교로 행진을 벌였다. 죽은 사람들 중 최소 3명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였다. 미군 장교 에릭 난쯔는 시위 군중들은 AK-47 소총으로 먼저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학교를 향해 총을 쏘았고, 미군은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반대편 쪽 집들에는 총알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반면, 학교에는 총알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전혀 없었다. 인디펜던트 지의 필 리브스에 따르면, 미군들이 두 개의 총알 자국을 보여준다고 기자들을 데리고 갔으나 그 구멍들은 모두 학교의 반대편에 나 있는 것들이었다고 한다.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무사나 살레 압델 라디프 씨는 “미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시위 군중을 향해 그저 총격을 가했다. 몇몇 부상당한 사람들이 우리 앞 마당으로 피신했다. 그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다, 나는 오른쪽 발에 총을 맞았고 마누라는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남동생 왈리드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다 총을 맞고 죽었고, 다른 동생 하나도 총상을 입었어요.”(The Guardian, 4/30/ World Socialist Website(AP 통신 인용), 4/30)

이날 부상당한 아메드 카림(21세) 역시 영국 일간지 Independen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학교 건물 가까이 가서 군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을 때, 미군들은 우리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4월 30일

24	공격지역 · 대상	바그다드 서쪽 50km 지점 팔루자의 시위군중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3명 사망, 16명 부상

민간인들이 미군의 총격에 사망한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각, 미군은 같은 곳에서 무장하지 않은 시위 군중들을 향해 또다시 총격을 가해 3명이 죽고 16명 가량이 다쳤다. 이날 시위 군중들은 28일 일어난 미군의 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위 군중들 중 아이들이 미군을 향해 돌과 신발 등을 던지자 미군들은 곧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이번에도 28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응사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사프라 러슬리는 “당시 집회는 평화적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무장하지 말라고 했었다.”라며 미군 쪽의 주장을 부정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팔루자 시청 관리 역시 시위 군중들로부터 나오는 총알은 없었다고 말했다. (AP, 4/30 World Socialist Website)

5월 3일

25	공격지역 · 대상	바스라 시의 14세 어린이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영국군이 발사한 총탄을 맞아 사망

4월 20일 ~ 5월 15일

26	공격지역 · 대상	바그다드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194~ 216명 사망

5월 21일

27	공격지역 · 대상	팔루자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탱크, 민간인 최소 2명 사망

5월 26일

28	공격지역 · 대상	사마라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총격으로 인해 민간인 최소 4명 사망

5월 28일

29	공격지역 · 대상	사마라 지역 미군 검문소를 지나는 민간 차량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최소 2명 사망

6월 1일

30	공격지역 · 대상	바그다드 아다미야 지역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총격으로 민간인 1내지 2명 사망

그 밖의 민간인 피해상황

3월 21일

- | | | |
|---|--------------|-----------|
| 1 | 공격지역 · 대상 | 음 콰스르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민간인 2명 사망 |

3월 23일

- | | | |
|---|-------------|---------------------|
| 2 | 공격지역 · 대상 | 나자프 |
| | 공격무기, 민간인피해 | 민간인 3~8명 사망, 50명 부상 |

- | | | |
|---|--------------|------------|
| 3 | 공격지역 · 대상 | 바그다드 남쪽 바벨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민간인 30명 사망 |

3월 29일

- | | | |
|---|--------------|----------------------|
| 4 | 공격지역 · 대상 | 이라크 중부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교전중 민간인 1명 사망, 2명 부상 |

이라크 군인들이 미 해병대에 맞서 강제로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아, 그 중 한 가족이 공격을 당했다. 격렬한 교전 과정에서 가족 중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와 4살짜리 소녀가 부상을 당했다.(AP 3월 31일자)

4월 1일

- | | | |
|---|--------------|--------------|
| 5 | 공격지역 · 대상 | 힌디예(Hindiye)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민간인 12명 사망 |

11명의 사망자들 중 2명은 여성이었고, 3명은 아이들이었다.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한 남자는 그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닭 한마리였다고 보고했다.(인디펜던트 4월 3일자)

4월 4일

- | | | |
|---|--------------|------------------|
| 6 | 공격지역 · 대상 | 바그다드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차량 사고로 민간인 1명 사망 |

미국인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켈리 기자가 혐비 차량 사고로 바그다드 근처에서 죽었다. 그는 월간 아틀랜틱지 수습 편집장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서 보병 제 3연대와 함께 있었으며 이번 전쟁에서 죽은 최초의 미국인 기자가 되었다.(출처: NPR 4/4)

3월 19일 ~ 4월 9일

- | | | |
|---|--------------|---------------------|
| 7 | 공격지역 · 대상 | 바그다드 소재 병원들(19개 병원)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민간인 1482명~2009명 사망 |

4월 11일

- | | | |
|---|--------------|---------------|
| 8 | 공격지역 · 대상 | 모술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민간인 2~ 28명 사망 |

4월 7일 ~ 4월 12일

- | | | |
|---|--------------|-------------------|
| 9 | 공격지역 · 대상 | 듀라 주거지역 부근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집속탄에 의해 민간인 3명 사망 |

4월 10일 ~ 4월 15일

- | | | |
|----|--------------|------------|
| 10 | 공격지역 · 대상 | 키르쿠크 |
| | 공격무기 · 민간인피해 | 민간인 40명 사망 |

키르쿠크를 점령한 미군의 방조속에 약탈과 파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인종그룹간의 반목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키르쿠크지역을 조사한 휴먼라이트워치는 4월 10일부터 15일동안 이 지역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무장한 시민들과 바트당 관료들사이의 무장충돌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HRW 4/15)

한 이라크 소녀의 일기

이라크 십대의 젊은이다운 필체로, 아말은 바그다드의 폭격 지역에 사는 가족의 감정을 자신의 오렌지색 일기장에 담아 전쟁 일기를 썼습니다.

전쟁에 관한 기록들은 트로이 이야기를 쓴 호머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투르키디데스로부터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서사적 부분들은 기자가 지난 겨울에 처음 만났던 아말과 7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인 카리마 셀만 메쓰밥 가족들의 일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말의 일기는 종종 보통의 이라크 사람들이 - 권력자의 군사력의 희생양으로서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라는 권력의 붕괴를 지켜본 목격자로서 어떻게 비정상적 격변의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시적인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바닥을 책상 삼아 램프불빛 아래서 자주 쓰여진 아말의 일기는 일군의 이라크 사람들의 생각이 한달 동안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콩지머리의 14살짜리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확실한 보호를 요구하는 호소의 중간 중간에 넣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부시의 미사일”은 적 이었고 미국 군대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말 가족들 중 누구도 그 당시엔, 11살짜리 쌍둥이 두하와 히바가 미군들과 이내 친근한 쪽지를 교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들은 두 장의 종이쪽지들을 보여주면서 수줍어했습니다. 한 장에는 “군인”이라고 뚜렷하게 써여져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트라비스” 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히바가 가늘게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써 놓았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신의 이름으로, 자비의 이름으로, 동정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아말입니다. 나에게는 9명의 행복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빠 알리, 모하메드와 3학년인 마흐무드, 16살인 언니 파티마, 9학년인 자이나브, 그리고 5년짜리 쌍둥이 두하와 히바가 그들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996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계속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명과 예언의 땅인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문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울고 계십니다. 전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우리는 물이나 전기가 없을 상황을 대비하여 양동이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두하와 히바는 전지전능하신 신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8시 30분에 엄마는 빵을 만드십니다. 전쟁 중에는 빵집이 열지 않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나는 아침 7시에 자이납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명도 안되는 여학생들만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전쟁 중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히바와 두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들은 정오에 학교에 갔지만, 12시 30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학교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전쟁으로 죽을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새벽 1시부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3월 19일 수요일

우리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을 청소하고, 아침을 먹고, 전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하와 히바는 기도를 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코란을 암송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때문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걀 하나는 200디나르 (8센트)입니다. 빵은 비쌉니다. 모든 것이 비쌉니다...

새벽 4시에, 부시는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파티마! 파티마, 일어나! 전쟁이 시작됐어!"

3월 20일 목요일

마흐무드는 일어나서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두하와 히바는... 아침이 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왜 부시는 우리에게 폭격을 하는 걸까요. 부시, 당신의 마음 속에는 아이들을 위한 자비가 없나요?

지금은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이웃인 움 사이프와 움 누아가 매우 걱정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낮 12시 30분이 되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갔는데, 단지 아주 적은 식료품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치즈를 얇게 자르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전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시는 오늘 우리에게 폭격을 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들은 "신께 바라건대, 그는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친구인 움 자랄씨 댁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이렌이 다시 울렸고 우리는 너무나 겁에 질려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밤 9시 15분에 폭격은 더욱 잦아졌고, 우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자매들과 어머니와 함께 우리 아파트 앞의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폭격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부시의 태풍이 다시 몰아칠지 모릅니다. 파티마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요?

3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바그다드가 공격당하는 날입니다. 저녁 8시10분에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바로 그 빌딩으로 날아갈 때, 친구 오말은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자, 폭격을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우리는 폭격음과 건물의 진동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이프 가족들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움 하이달이 집에 질려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가 일기를 쓰고 있는 동안, 우리 건물의 옆집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9시 35분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겁에 질렸고, 내일 아침이 오길 신께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지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궁전들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30분에 폭격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광경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되었고,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이시여, 제발" 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

지금은 오후 3시 16분입니다. 폭격은 이제 하루종일 계속됩니다. 새벽

2시 15분에 아주 큰 소리가 났고, 어머니는 겁에 질려 일어나셨습니다. 4시에 아주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신이시여, 왜 우리는 반드시 고통받아야만 하나요?

3월 23일 일요일

우리는 알 파날 호텔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평화를 위한 사람들(서양의 활동가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생일을 축하해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행가인 자말과 함께 앉아서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고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우리는 비행기 한 대가 아주 크고 강하게 3번 폭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죽은 미군과 다른 수감자들을 봤습니다. 수감자들은 텍사스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죽은 군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가족과 그들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이 전쟁은 왜 있는 걸까요?

7시 8분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미국 비행기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아주 큰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희망이 모든 이라크 가족들과 미국 가족들에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신께 단지 평화만을 바랍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 50분에 우리는 미사일 공격을 들었습니다. 바람은 먼지가 잔뜩 섞였고, 매우 빨랐고, 물은 붉은 색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전쟁이 신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하늘이 노한 것 같았습니다. 신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착하고,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차라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7시 50분에 바람은 매우 거세졌고, 우리 아파트의 문은 흔들렸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 35분에 하늘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처럼 붉은 색깔로 변하였습니다... 죄 없는 이라크와 미국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퍼부어서 거리의 먼지를 쓸어냅니다. 하늘은 화가 났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지금은 오후 5시 56분입니다. 아이들은 부시가 언제 바그다드를 공격할지 모른 채, 복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 3월 30일 일요일

미국인들은 오후 1시 20분부터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뛰어갑니다. 어머니는 "겁먹지 말아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한 방에 모였습니다. 히바, 두하 그리고 마흐무드는 기도를 합니다. 전쟁! 전쟁! 전쟁! 당신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나요? 왜? 왜? 왜? 죽음을 부르는 전쟁이죠?

3월 31일 월요일

그들은 밤낮으로 폭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앰블런스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아부 사이프 가족들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부시와 블레어 총리의 감정과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가슴속에서 뛰는 사랑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4월 1일 화요일

오후 5시 15분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비추어주소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소서. 전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남부지방의 다친 아이들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죽은 아기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위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4월 3일 목요일

나는 텔레비전에서 미군들이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바스라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4월 6일 일요일

전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 역시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으로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들은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바그다드로 진격하고 있고, 우리 군대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겁이 나요.

매일 우리는 아래층으로부터 물을 날라서 채워야합니다. 우리는 우리 건물 가까이에서 들리는 큰 폭격음과 총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도 지붕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너무 강한 공격을 합니다... 3시 23분에 우리는 미군과 이라크군의 격투를 들었습니다. 4시에 우리는 미국인들이 대통령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비행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용해질 때마다,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 53분에 나는 미국 탱크가 우리 바로 옆의 길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그다드는 미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우리는 움 모하메드의 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에 잠을 깬습니다. 그녀는 바그다드와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뉴스는 이라크 사람들이 정부 건물들을 파괴하고

물건들을 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과 그의 가족들은 도피했다고 합니다. 약탈에 대한 공포는 더욱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생각없이 약탈하는 것입니까? 미국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4월 11일 금요일 ~ 4월 13일 일요일

이라크 사람들은 보통 금요일 예배를 위하여 일찍 모스크에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라크 사람들은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병원들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세 대의 탱크가 미군을 싣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미국 탱크가 우리 건물 앞에 멈췄고, 사람들은 미군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두하와 히바가 앞으로 나갔고 군인들은 그들에게 초콜렛을 줬습니다. 이 군인들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시에게 조종당하고 있지요. 아이들은 미국 탱크를 둘러쌌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라크 탱크를 부수고는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작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일어나서 미국 탱크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양동이에 물을 좀 담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전기를 돌려주지 않지요?

오후 3시 10분에 미군들은 걸어서 지나갔고, 5시 20분에 그들은 미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그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떠나고 갔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탱크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움 사이프의 발코니에 있었

습니다. 미국인들이 나에게 손을 흔들었고, 나도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오후 1시 55분에 쌍둥이들은 집으로 와서 미국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고, 아이들의 손에 자기들의 이름을 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바의 손에는 군인들의 이름이 써여져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군인들이 좋은 사람이고, 이 행복한 만남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 일까요? 오직 신만이 아시겠죠.

4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는 비행기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창 밖을 내다 봤는데, 밖은 조용했고, 새들은 날고 있었고, 아이들은 행복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것은 정말 좋습니다. 아무도 미국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대의 탱크가 건물을 지나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 엄마! 저기 미국 사람들을 태운 예쁜 탱크를 좀 보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닙니다. 그들은 아이들일 뿐이지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4월 16일 수요일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은 어디에 있지? 그의 군대는?”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담이 말했듯 이라크와 미국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났는지 모릅니다. 30년에 걸친 사담의 권력

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후세인에 대해 묻습니다. 만약 사
담이 나타난다면? 이라크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일을 싫어합니다.

이번 주에 가정집의 전기는 비록 때때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
왔습니다. 전기가 돌아올 때 사람들은 물탱크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무
도 아직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5월 중순이 되면 학교
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알리오빠가 전선에서
돌아와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죽이기 위해 연합했다

가즈완 알 무크타리의 인터뷰 (2003년 3월 27일 바그다드)

이 인터뷰는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방송국과 바그다드의 민간인 거주
지역 내 시장에 폭격을 했다는 보고가 있는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Democracy Now!의 사회자 에이미 굿맨과 제레미 스커힐 특파원이 바그
다드에 지이 있는 퇴직한 기술자 가즈완 알 무크타르와 이야기하였습니
다. 이것은 급하게 작성된 녹취록입니다

Democracy Now!의 제레미 스커힐 특파원: 우리는 퇴직한 기술자이자
바그다드의 평범한 주민인 가즈완 알 무크타르와 전화 연결이 되어있습
니다. 당신이 미국 방송에서는 거의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이지요. 가
즈완, 우리는 바그다드의 시장지역이 폭격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과 이라크 방송국이 공격당했다는 것
두요. 당신이 지금 바그다드에서 듣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가즈완 알 무크타르: 제레미, 우리는 지난 밤부터 계속되는 폭격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개전 이래 가장 심각한 폭격으로 겁에 질
려 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방송국과 이라크 인공위성 채널을 공격했
고, 그것은 수만은 언론인과 방송국 기술자들의 죽음을 불러 일으켰습니
다. 또한 그들은 텔레비전 위성채널 특파원들의 집회, 또는 정보부의 국
제특파원 집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는 기자 회견실 입니
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언론인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언론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격이나 폭격으

번역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시아

이 글은 2003년 5월 2일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지의 Scott Peterson에 의해 작성된 기사 내용입니다.

로부터 면제되는 언론인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미국은 폭력을 계속하여 행할 심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처해있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바그다드로부터 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죠.

Democracy Now!의 사회자 에이미 굿맨: 방송국 빌딩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묘사해 주세요.

가즈완: 안테나와 인공위성 채널 빌딩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에 수 백명의 기술자와 직원들, 리포터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죽었습니다. 또한 바그다드 텔레비전 방송국과 대통령 아들인 우다이 후세인에 의해 운영되는 “청년방송” 건물도 폭격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라크에는 텔레비전 중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오후 한 외국언론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낙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고, 또 모든 언론인이 모여 있는 정보부와 기자회견실이 오늘 밤 다시 공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지요.

제레미: 가즈완?

가즈완: 만약 그곳이 공격당한다면, 아주 많은 언론인들이 이라크를 떠날 것이고 아무도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참상에 대해 알리지 못할거예요.

재래마: 가즈완, 당신은 지금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나요? 저는 공격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당신이 집 밖으로 나와서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가즈완: 제레미, 내가 집안으로 돌아온건 30분 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는 바그다드를 쫓 돌아왔어요. 나는 만수르, 아드하미야, 카라다에 갔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은 또다시 어떤 움직이는 교통수단도 공격 목표물, 정당한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바레인 논평으로부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길로 여행다니는 시민들은 미군 중앙 명령본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며 도시를 한바퀴 돌거나, 다친 친척들을 방문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에이미: 가즈완, 당신은 왜 떠나지 않나요?

가즈완: 어디를 떠난다는 말이죠?

에이미: 바그다드요.

가즈완: 다른 모든 도시들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만 표적이 아니예요. 바쿠바도, 모술도, 티크리트도 힐라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이 나라 전체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들리는건 단지 바그다드와 바스라가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술, 바스라, 키르쿠크, 티크리트, 사마와, 나시리야, 이 나라 전체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라마디는 서부지역의 표적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디로 가겠나요?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당신이 또 표적이 될 다른 도시로 갈건가요? 만약 집을 떠난다면 무엇을 가져갈래요? 침대, 석유, 음식 이런 것들을 가져갈래요? 당신은 아마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 트럭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달, 또는 그 이상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제레미: 가즈완?

가즈완: 나는 내 가족들을 바그다드 외부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그들과 통화했을 때, 그들은 서부지역에서도 공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레미: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즈완 알 무크타르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이라크 인이며, 퇴직한 기술자로 바그다드에 살고 있습니다. 가즈완, 우리는 미군이 바그다드에 아주 가까이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지요?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는 미군이 바그다드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잠재적 포위공격에 대해 묘사한 바가 있어요.

가즈완: 이봐요, 제레미.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건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그들도 그걸 예상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해 왔었어요. 우리는 음식을 비축했고, 물을 비축했고, 식수를 비축했고, 우물을 파고, 발전기를 사고, 석유를 비축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장기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아직까지 사람들은 바스라를 포획하지 못했어요. 포격의 도시 바스라는 4박 4일동안 물과 전기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적신월사와 적십자사에 의한 소식이에요. 심지어는 코피 아난도 바스라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 가즈완?

가즈완: 바그다드에서 우리는 폭격 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짧은 시 일동안 폭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 폭격으로 되겠지요.

에이미: 우리는 지금 가즈완 알 무크타르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통의 이라크 사람과 통화하는 것이 전국으로 방송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그리고 지금 바그다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라크 희생자들의 사진을 이 나라에서 보기란 참 힘들지요.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아주 끔찍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과, 구출되지 못한 끔찍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 자지라와 같은 다른 곳에서 보여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죠. 국방부는 예전에 미국인들은 동정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본다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즈완, 당신은 텔레비전에서 어떤 걸 보나요? 당신은 이라크 희생자들을 보나요? 당신은 미국인 희생자들을 보나요?

가즈완: 이봐요. 나는 고참 의사인 두 명의 조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막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마침 그 중 한 명은 이라크 위성 채널의 희생자들을 위해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왔지요. 그리고 그가 말하길 병원은 꼭 찼다고 합니다.

제레미: 가즈완?

가즈완: 나는 그와 말했어요. 나는 그와 점심을 먹었지요.

제레미: 가즈완, 미군이 바그다드로 온다면 당신을 무엇을 할 겁니까? 남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이죠?

가즈완: 글썄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구요? 나는 내 건총을 장전해서 쏘 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집으로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건 쏘 버릴 겁니다. 나는 60살 먹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외국인에게도 나에게 무얼 해야 할지 말해 달라거나 내 나라를 운영해 달라고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곳은 내 평생을 바치고, 무엇인가를 이룩하려고 했고, 많은 이라크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던 내 나라입니다. 이라크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제재 때문에 이라크는 삼류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1961년을 기억하나요? 그건 42년 전입니다. 그때 이라크 정부는 내가 공부하도록 나를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유학 보내줬어요. 이라크는 많은 돈과 시간을 교육에 투자 했었죠. 일련의 이라크 정부들, 모든 이라크 정부들이 그랬었죠. 우리는 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망쳐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걸 파괴시켰습니다. 그들은 91년도에 파괴시켰고 우리는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다시 세워놓은 것을 전부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미국정부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가즈완: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랬습니다.

에이미: 미국정부는 사담 후세인이 파괴한 자라고 말해요.

가즈완: 뭐라구요?

에이미: 미국정부는 사담 후세인이 모든 걸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가즈완: 글썄요, 그건 그들의 관점에 따른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사담 후세인은 1984년 도널드 럼스펠드가 왔을 때 악수를 하고 그가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대통령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바로 당신네 미국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바로 그 똑같은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럼스펠드의 사담후세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변했나요? 사담 후세인은 79년도 정권을 획득할 때부터 내

가 알고 있던 그 똑같은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었다면, 그건 도널드 럼스펠드의 관점일 뿐이죠. 사담 후세인은 로널드 레이건과 그의 전임 대통령부터 거래했던 바로 그 똑같은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는 사담 후세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부시는 자신이 원하는건 뭐든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정당하게 만드는건 아닙니다.

제레미: 이것은 제가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즈완 알 무크타르의 목소리입니다. 한 평범한 이라크인이 미국인들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즈완,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전국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가즈완: 제레미, 내가 미국, 영국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그것은 내게 “우리 모두를 죽이기 위해 연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미국, 영국이라는 첫글자들을 보여줬을 때 내가 느끼는 바예요. 그 두 나라들은 우리를 모두 죽이기 위해 연합했어요. 우리가 현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에 상관없이 말이죠.

제레미: 가즈완?

가즈완: 제레미,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장님이 장님을 이끈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장님이예요. 내 말은 미국 정부는 장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우리 이라크 사람들이 미군을 환영할거라고 말하는 반대편 사람들인 또 다른 장님에 의해 이끌어지죠. 그리고 당신은 움 카사르, 알 파오, 그리고 바스라와 나시리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지요. 그 장소들은 당신들이 이라크 인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지요. 하지만 이라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깐 지금은 당신들이 눈을 뜨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보고, 의

미를 이해하고, 수사학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그럴 시간이 된 겁니다.

에이미: 가즈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시길 바래요.

가즈완: 정말 감사합니다.

번역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시아

전쟁을 멈추십시오.

살리 이브라힘 박사(Dr Salih Ibrahim)

웨스트민스터 병원 옆의 다리 근처에는 야자수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나무는 잘못된 장소에 심어진 것 같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NHS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와 수천 명의 이라크 출신 의사들 그리고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을 이라크에서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라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 명의 아이들은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이라크 가족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전쟁으로, 또는 대규모의 파괴적인 제재로 잃었습니다. 제재는 170명의 어린이들을 매일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이라크 고향을 방문했을 때, 저는 1970년대에 필적할 만한 황폐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했던 병리학과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직도 31년전 제가 사용했었던 낡은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었던 초등학교에서 저는 얼마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희망이 꺾였는지 보았습니다. 교실 창문에는 유리가 없었고, 화장실을 넘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갈 수 없었고 그것은 요도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미세 영양소가 결핍된 녹말 음식의 섭취로 비대증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과일을 먹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에 큰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섭취할 깨끗한 물 역시 부족합니다. 이라크는 다른 나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

지만 바스라에는 낮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원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약품과 의료 기구가 없습니다. 1990년 이래 암의 발생률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 친구인 고참 외과의사는 한 달에 25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라크를 떠날 때 제 월급은 한달에 600달러였습니다. 이라크는 석유의 바다 위에서 부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라크 사람들처럼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은 부쳐줍니다. 저는 항상 이라크로 돌아가려 하지만 계속되는 혼란이 저를 막고 있습니다. 서구의 정책들이 이라크를 황폐화시키고 석유와 사람들을 약탈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대량 학살입니다. 전쟁을 멈추십시오.

반역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시아

살리아 이브라힘 박사(Dr Salih Ibrahim)는 병리학 전문의로 영국 Surrey주(州) Chertsey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1981년 이라크 제 2의 도시인 바스라를 떠나 영국으로 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약 100명의 이라크 출신 병리학 전문의로서 2003년 2월 4일 가디언(Guardian)지에 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도 준비할 것입니다!

나디아 마모우드(Nadia Mahmoud)

저는 이라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저와 제 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위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전남편은 이라크 남부의 정치 활동가였고, 그는 1995년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래서 1997년 이라크를 떠났습니다.

저는 내가 경제적 제재에 반대하는 것처럼 전쟁에도 반대합니다. 다른 수많은 이라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사담후세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간섭에도 반대합니다. 사담후세인은 미국의 지지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를 제거하고 이라크에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나 이라크 사람들을 위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의미합니다.

이라크 국회는 경제제재에 대한 지속에 찬성하는 효과를 지닌 '음식 대신 석유(oil-for-food)'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찬성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이라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이라크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1991년, 이라크 사람들은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간의 제재로 대가를 치른 것은 사담후세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라크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석유를 관리하며, 그것을 팔 것입니다.

만약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바뀐다면 우리 중동여성학센터 회원들은 기

구로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첫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에 지사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석유회사들이 준비하듯이 우리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이 투자하듯이 우리도 투자할 것입니다.

비록 사담의 정권아래 35년간 고통을 겪었지만, 저는 물론 이라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친구, 유년 시절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들은 내 삶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라크로 돌아가는 것은 또한 내 아들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는 11살입니다. 제가 그에게 혹시 이라크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그는 “그래요, 휴가로 가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텐트에서 낙타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선택적 보복주의에 찬성하는가

하이파 자가나(Haifa Zagana)

우리가 진실로 찾고자 노력한다면 전쟁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기사찰단에게 요구하여서 그들에게 감옥과 인권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요소를 통해 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일 과제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도록 돕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어떻게 내일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까 라면 과연 어떻게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라크 사람들은 지난 12년간의 제재로 인해서 지적인 정체현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신문이나 잡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민중에 반하는 정권을 힘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라크 민중들은 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저는 만약 제재가 철회된다면, 이라크 민중들은 충분히 사담을 자신들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 국가들이 사담의 정권에 무기를 제공하고 심각한 제재를 가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 일을 훨씬 이전에 이루었을 것입니다.

번역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시아
나디아 마모우드(Nadia Mahmoud)은 이라크 반체제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동여성학센터(MECWS)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녀가 2003년 2월 4일 가디언(Guardian)지에 기고한 것입니다.

번역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시아
Haifa Zagana는 현재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 출신의 소설가로 2003년 2월 27일 가디언(The Guardian)지에 이 글을 기고하였습니다.